

이 논문은 2018년 3월 24일에 2017년도 한글학회 선정 우수 논문상 수상 연구논문임.

This article was awarded the 2017 Best Research Award by Hankulhakhoy, The Korean Language Society, March 24, 2018.

범언어적으로 본 문자 표기 방식의 변화와 한글 전용*

이성하

— 차례 —

1. 들어가는 말
2. 문자체계의 유형과 기능
3. 문자의 생성, 변화와 소멸
4. 한국적 맥락 속의 문자체계
5. 끝맺는 말

〈벼리〉

이 글은 범언어적으로 문자의 표기 방식을 고찰해보고 최근 한자 병기 문제와 관련지어 한국적 맥락에서 문자체계의 의미를 살펴본 논문이다. 특히 문자가 갖고 있는 언어적, 개인적, 사회적 기능 등을 살펴보고, 고대로부터 문자의 기원과 발달, 차용과 혼용, 그리고 소멸의 사례들을 보인 후, 이러한 문자의 변화가 가지는 의미를 한국적 맥락에서 조망하고 언어정책의 관점에서 중요성을 찾아보았다.

결론적으로, 한자를 병기하는 것은 언어적,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주장한다. 즉, 한자는 한국인의 문자생활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며, 사회적으로도 한자의 사용은 정체성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고, 국가적으로도 한국에서 사용되는 한자를 교육하는 것이 동북아 의사소통에 효과적이지 않음을 다양한 범언어적 사례와 언어학적 원리들을 들어 주장한다.

주제어: 문자, 한글, 한글 전용, 한자 병기, 국한문 혼용, 범언어적 연구.

* 이 논문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으며, 한글학회가 주최한 570돌 한글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2016. 10. 7. 서울교육대학교)에서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도움을 주신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1. 들어가는 말

고대 역사학과 아시리아학을 연구했던 폴란드 출신의 미국 언어학자 겔브(Gelb)는 그램머톨로지(grammatology; 문자학)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고(Gelb 1963[1952]) 학문으로서의 문자체계 연구를 선도하였다. 이후 언어학계에서는 문자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에어리히 외(Ehlich et al. 1995)의 연구 목록에 따르면 1995년까지 약 25,000편 이상의 연구물이 출간되었다. 문자의 중요성은 대니얼스가 “인간됨은 언어로 규정되지만 문명은 문자로 규정된다.”¹⁾고 한 말에서 잘 요약되고 있다. 문자는 지식의 축적과 전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말이 개인과 사회의 정체성을 구성하듯이 문자도 개인과 사회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문자를 어떻게 다룰까 하는 문제는 국가라는 공동체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최근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할 것인가에 대해 큰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표음문자인 한글과 표어문자인 한자는 근본적으로 이질적인 문자(script)이다.²⁾ 그러나 역사적인 이유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 표기라는 하나의 문자체계(writing system)에 이를 혼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역사적으로 문자

1) “Humankind is defined by language; but civilization is defined by writing.”(Daniels 1996 : 2)

2) 한자와 같은 문자체계를 가리키는 “logography”를 “표의문자”(국립국어원 2008), 또는 “어표문자”(신상순 2000) 등으로 번역하고 있으나, 익명의 심사자의 권고에 따라 이 글에서는 “표어문자”로 부른다. 심사자에게 감사드린다.

체계가 변화한 사례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사례들이 한국적 맥락에서 가지는 의미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2절에서는 문자체계의 유형과 기능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3절에서는 문자의 생성과 소멸의 사례를 살펴보며,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4절에서는 한국적 맥락에서 문자체계를 살펴보고 한자 병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역사적 사례와 언어학적 이론에 기초하여 반박한다.

2. 문자체계의 유형과 기능

2.1. 문자체계의 유형

문자체계에 대한 유형적 분류는 겔브(Gelb 1963[1952]), 드프란시스(DeFrancis 1989), 샘슨(Sampson 1985), 힐(Hill 1967) 등에서 다양하게 제시된 바가 있다. 이들의 분류는 기본적으로 말과의 관련성에서 낱소리, 음절, 단어 등 다양한 언어 층위 중 어느 층위를 글자가 표시하고 있는가에 따라 구별하고 있다. 일부의 이견이 있기는 하나 세계의 문자체계는 대략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1) 세계의 문자체계

- 표어문자(logographic): 한자, 고대이집트어
- 음절문자(syllabographic, syllabic): 가나, 아카드문자
- 자음문자(consonantal, abjad): 아랍문자, 히브리문자
- 알파벳문자(alphabetic): 로마자, 키릴문자
- 자질문자(featural): 한글

표어문자는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의미 단위(단어)를 나타내며 따라서 많은 수의 글자가 필요하고 동음이의어가 필연적으로 많다. 음절문자는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음절을 나타내며 따라서 음

절 구조가 간단한 언어가 아니면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글자가 필요하다. 자음문자는 3~4개의 자음으로 한 단어를 표시하며 모음은 언어 사용자의 문법 지식에 따라 채워 넣는 방식이기 때문에 구어 지식이 전제되지 않으면 발음을 할 수 없다.³⁾ 알파벳문자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문자로 하나의 글자는 하나의 음소를 나타낸다. 음소의 수는 제한되어 있고 글자의 조합이 자유롭기 때문에 적은 수의 글자로 거의 무한한 단어를 만들어 낼 수 있어서 효율성이 높은 문자체계이다. 자질문자는 알파벳문자와 같이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음소를 나타내면서도 글자들 사이에 음소의 음성 자질 성분이 드러나는 체계로서 발달된 알파벳문자로 볼 수 있다.⁴⁾

2.2. 문자의 기능

문자의 기능과 영향은 인간 생활의 다양한 방면에 걸쳐서 나타난다. 그 다양한 기능을 폭넓게 살펴보는 것은 이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언어학적 영향, 개인적 기능, 사회적 기능에 초점을 두어 살펴본다.

문자가 충분히 발달하기 이전 고대에는 문자를 이용하여 말을 옮길 때에는 단어의 경계 없이 들리는 대로 쓰는 방식, 즉 생어(Saenger 1991, Coulmas 2003[1999] : 213에서 재인용)가 “이어쓰기(scriptura continua)”라고 이름 붙인 방식으로 썼으며, 이러한 방식은 인쇄술이 발달하기 이전의 유럽 국가들에서는 물론, 맞춤법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던 20세기 초 한국에서도 자주 관찰되는 현상이었다. 이러한 단계에서는 문자가 말을 글로 옮겨 놓은 보조

3) 한 심사자의 지적과 같이, 자음문자를 별도의 문자체계로 분류하는 학자들도 있으나 이를 알파벳문자의 한 유형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

4) 자질문자는 샘슨(Sampson 1985)의 분류에 따른 것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자질문자를 알파벳문자에 포함시켜 분류한다.

적인 역할 외에 큰 의미를 갖지 못하였다. 그러나 문자가 언어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 많은 연구들에서 밝혀지고 있다. 일찍이 1930년대에 비고츠키(Vygotsky 1934)는 글이 말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간파하였고, 체이프와 다이엘레비츠(Chafe & Danielewicz 1987)는 글이 담화 계획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기본(Givón 1979)은 문자를 사용하게 되면 문장구조가 복잡하게 된다는 주장을 폈다. 특히 칼마르(Kalmár 1985)는 문자가 없던 사회가 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전보다 언어의 복잡성이 현저하게 증가된다는 것을 이누티투어의 사례를 들어 주장하였다.⁵⁾ 즉, 문자의 사용이 말의 언어구조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글에 의해 언어 접촉이 이루어지는 경우, 차용어가 유입되거나 철자식 발음이 증가하고 언어 표준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의 언어 변화가 생겨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Coulmas 2003[1999] : 208).

문자의 사용이 소수만의 특권이 되는 경우, 문자 사용자들은 문자를 사용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특권층의 위신과 명망을 얻었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Black 2008 : 65). 이러한 특권은 현대에도 글을 잘 쓰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주어지고 있다. 특히 외래 문자체계가 함께 사용되는 환경에서는 특권층 사람들이 더 명망 있는 외래 문자체계를 사용하면서 현학적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블랙(Black 2008 : 63~64)에 따르면, 고대 페르시아에서 설형문자의 사용은 특별한 과시의 기능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과시 현상은 한국에서도 한자와 한자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교육 수준, 지적 능력 등을 과시하려는 경향에서도 잘 드러난다. 현대적인 맥락에서 보면, 문자 혜택률이 낮은 개인들

5) 이누티투어(Inuktitut)는 캐나다의 원주민의 언어 중 하나로 유픽-이누잇어라고도 부르는 에스키모어 중의 하나이다. 2011년을 기준으로 약 34,100명의 사용자를 갖고 있다(Lewis 외 2015).

은 사회적으로도 주류 사회에 들지 못하고 주변인으로 남아 있게 되며 따라서 소득 수준도 낮아 공동체 안에서 낮은 계층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개인적 차원의 문자 사용의 의미는 국가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아디세쉬아(Adiseshiah 1990)의 유네스코 보고서에 따르면 문자 해득률이 낮은 국가는 문자 해득률이 높은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국민소득이 낮다.

문자의 기능은 널리 알려진 정보와 문화의 전달 차원을 넘어 다양하게 나타난다. 특히 사회적 차원에 주목하여 보면, 문자는 도시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Wheatley 1971 : 401), 문자는 언어공동체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단위, 즉, 국가나 종교, 문명과 동일시되기도 한다(Houston 외 2003 : 450). 무엇보다도 문자의 사회적 기능 중에는 상징적 기능이 대표적인데, 특히 개인의 경우에도 그러하듯이 사회의 정체성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즉 한 사회의 정체성을 문자로 규정하는 것이다. 문자체계와 사회의 정체성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심지어는 동일한 문자체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자형, 즉 글자체(font)를 달리 해서 정체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례는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 국가들이 12세기부터 20세기까지 로마자와 대비되는 고딕체(Gothic 또는 ‘흑자체(black letter)’, ‘프락투어(Fraktur)’)를 사용하여 자국의 사회적 정체성을 주장한 것에서 잘 드러난다.

문자와 정체성의 관련성을 가장 잘 보여 주는 예는 힌디어와 우르두어의 경우이다. 이 두 언어는 통상 힌두스탄어(Hindustani)라는 명칭으로 통합되어 불리기도 할 정도로 언어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Everaert 2010 : 247~249), 문자가 가장 분명한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두 언어를 서로 다른 문자체계로 표기함으로써 서로 다른 정체성을 주장한다. 즉, 힌디어는 힌두교도들인 다수의 일반인이 사용하는 언어로 데바나가리문자

를 사용하고, 우르두어는 이슬람교도들인 소수의 엘리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페르시아계 아랍문자를 사용한다(Grivelet 2001 : 4; Brandt 2016 : 149). 문자가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기능의 극단적인 예 중에는 엘람문자, 아케메니드문자, 고대페르시아문자, 아카디아어문자 등이 있는데, 이들은 문자가 통상 가지는 정보 전달의 기능이 소멸한 후에도 순수하게 정체성 표시라는 상징 기능으로 일정 기간 존속하였다(Black 2008 : 56).

또한 문자가 국가나 지역의 정체성과 맺는 관련성은 이탈리아 반도에 존재하던 다양한 정치 단위들이 사용하던 다양한 문자들이 로마자로 통일되어 가는 과정에서도 잘 드러난다(Lomas 2008, Keller-Cohen 1994, Gaur 2000). 국가와 같은 정치 단위들 사이에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생겨날 경우 피지배자의 문자는 경멸 받는 문자(“a subordinate script is a despised script”; Houston 외 2003 : 433-434, Lomas 2008 : 128)라는 부정적 낙인이 찍히게 되고, 따라서 그 문자 사용자들은 자신들의 문자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없게 되어 사용을 꺼리게 되며, 대신 지배자의 문자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결국 자신들의 고유한 문자는 사라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3. 문자의 생성, 변화와 소멸

3.1. 문자의 기원

지금까지 학계에 알려진 본격적인 고대 문자들, 즉 수메르의 설형문자(BCE 3100경), 중국 상나라의 갑골문자(BCE 1200~1050) 이전에도 현대적 의미의 문자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의미를 전달하고자 사용된 표시라는 점에서 이른바 원시문자(proto-writing)라

고 불리는 것들이 있다.⁶⁾ 원시문자에는 토기의 문양, 메시지 막대, 매듭 끈, 인장, 썸 막대, 진흙 인장, 채색된 조개껍질, 그림 표지, 키푸(quipu, khipu) 등을 들 수 있다. 동굴이나 암벽 등에서 흔히 발견되는 간소화된 벽화나,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물을 간략하게 그린 정형화된 그림들도 문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예를 들어, 힐(Hill 1967)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사용하는 그림문자를 “담화문자(discourse writing)”라 불렀다.

모든 문자가 하나의 기원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이른바 단일 기원설(monogenesis hypothesis)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중국, 중앙 아메리카 지역에서 각자 발달한 문자체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오류로 생각되며(Coulmas 2003[1999] : 192), 이란 수사지역의 원시 엘람문자(Damerow & Englund 1989), 미노아의 크레타인들이 사용하던 A선형문자(Godart & Olivier 1976), 인더스 계곡에서 사용된 인더스문자(Parpolo 1994) 등도 다른 문자와의 관련성을 찾을 수 없는 문자들에 속한다.

비록 세계의 문자들이 하나의 기원에서 발달한 것은 아니지만 모든 문자들은 공통적으로 그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알려진 대부분의 문자들은 그림에서 시작되어 점차 간소화되는 과정을 거쳤으며, 고대의 이집트어, 중국어, 그리스어 등에서 ‘쓰다’라는 단어가 ‘그리다’라는 단어와 동일하였다는 점에서도 글과 그림의 관련성이 잘 드러난다(Coulmas 2003 : 196). 이처럼 문자가 그림에서 출발하였다는 점에 기초하여, 초기의 문자는 문자가 단어를 나타내는 표어문자였을 것으로 가정하고, 현대에서 가장 발달

6) 초기문자들의 정확한 연대는 확증하기 어려우나 샘슨(Sampson 1985 : 46)에 의하면 최초의 수메르 문자는 기원전 4000년대 후반부터 BCE 3000년대 정도일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익명의 십사자에 따르면 최근 학계의 일반적인 입장은 BCE 3100년이라 한다.

된 문자체계가 음소를 표기하는 알파벳문자라는 점을 대비시켜, 젤브(Gelb 1963[1952])와 같은 학자들은 문자가 표어문자에서 음절문자로 다시 알파벳문자로 발달한다는 단일 방향성 가설을 주장한 바 있다.

3.2. 문자체계의 변화

역사적으로 많은 언어들에 문자체계의 변화를 겪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최근에도 일어났다. 대표적인 사례들을 언어 또는 국가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 (2) 문자체계 변화의 사례 (Coulmas 1999 : 454 외)
- 베트남: 한자 > 로마자 (1920년대)
 - 몰도바: 키릴 (1920) > 로마자 (1989)
 - 인도네시아: 나가리문자 > 아랍문자 > 로마자 (20세기)
 - 말레이시아: 나가리문자 > 아랍문자 > 로마자 (20세기)
 - 터키: 아랍문자 > 로마자 (1928년)
 - 소말리: 아랍문자 > 로마자 (20세기 중반)
 - 스와힐리: 아랍문자 (18세기) > 로마자 (19세기)
 - 하우사: 아랍문자 (17세기) > 로마자 (19세기)
 - 루마니아: 키릴문자 > 로마자 (1860년)
 - 구소련 국가: (아랍문자 >) 로마자 > 키릴문자 (1920~30년대; 소련 붕괴 후 일부 국가 회귀)
 - 타지키스탄: 키릴문자 > 아랍문자 (1992년)
 - 아제르바이잔: 키릴문자 > 로마자 (1991년)
 - 고대 콥트인: 이집트문자 > 그리스문자 (3세기)
 - 몽골: (한자 >) 위구르 파스파문자 (12세기) > 로마자 (1941) > 키릴문자 (1941)⁷⁾
 - 북한: 한글·한자 혼용 > 한글 전용 (1949년)

7) 쿨머스(Coulmas 1999 : 371)에 따르면 몽골은 매우 복잡한 문자사를 갖

문자체계의 변화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다.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서는 정치와 종교를 들 수 있다. 또한 정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무역도 중요한 원인이 된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고대 사회에서는 제국의 팽창과 더불어 문자에 큰 변화들을 가져온 사례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달한 설형문자는 아시리아, 바빌로니아와 같은 제국들의 영토가 인접 지역으로 팽창하면서 그 문자의 사용 지역도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아랍문자도 제국의 팽창과 함께 확산되었으며, 한국어, 몽골어, 페르시아어, 루마니아어, 터키어, 베트남어 등이 겪은 문자체계의 변화도 대체적으로 정치적인 이유에서 생겨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치적 이유에 의한 문자 전환으로는 구소련 국가들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인데, 이 국가들은 대부분 로마자나 아랍문자, 기타 개별 문자를 사용하고 있다가 소비에트 연방에 편입되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문자들을 키릴문자로 바꾸게 되었다. 그러나 소비에트연방이 해체되면서 역시 정치적인 이유에서 타지키스탄이나 아제르바이잔과 같은 일부 국가들은 이전의 문자체계로 회귀하게 되었다(Baines 2008 : 351).

현대사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문자 전환이 일어난 또 다른 대표적인 사례는 터키를 들 수 있다. 1920년대 터키의 케말 아타튀르크

고 있다. 12세기부터 위구르문자를 차용하였으며, 같은 시기 로마자와 키릴문자도 차용하였고, 13~14세기에는 한자와 파스파문자를, 13~15세기에는 아랍문자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1931년에 로마자를 도입하였으나 소련의 정치적 압력에 의해 이를 포기하고 키릴문자를 사용하였으며, 1941년에는 몽골문자를 공식적으로 폐기하였다가 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1990년에 다시 몽골문자를 공식문자로 채택하게 되었다. 위키피디아(2016)에 따르면, 몽골은 13세기 이전에는 한자를 음가에 따라 차용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문자체계 변화에는 주로 실용적 이유 외에도 종교적, 정치적 이유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크는 정치적으로 서양화 정책을 폈으며 이에 따라 당시 사용하고 있던 아랍문자를 로마자로 바꾸었다. 문자체계뿐만 아니라 어휘도 다수 교체한 이 개혁은 대체적으로 성공적으로 평가되는데 그 결과 오늘날 터키에서는 그들의 고대어인 오토만 터키어를 아랍문자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가 되었다(Black 2008 : 63, Baines 2008 : 351~352).

이외에도 정치적인 이유로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문자체계를 분리해서 사용하는 많은 예들이 있는데, 로마자를 사용하는 루마니아와 키릴문자를 사용하는 몰다비아, 로마자를 사용하는 핀란드와 키릴문자를 사용하는 카렐리안 등이 있으며, 같은 국가나 언어권 내에서도 문자체계가 분리되어 있는 알바니아(그리스문자와 로마자), 자바(자바문자와 로마자), 스와힐리(아랍문자와 로마자), 몽골(몽골문자와 키릴문자) 등의 상황도 모두 정치적인 이유에 의한 문자체계 분리의 예라 할 수 있다.

종교도 문자 전환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문자 기록자, 회계 관리자 등은 대개 성직자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성직자가 성전에서 상행위를 통제하고 기록하며, 경전을 필사하고 관리 보관하고 연구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사적 흔적은 영어 단어 ‘clerk’, ‘cleric’ 등이 ‘성직자’, ‘기록자’, ‘금전 출납 관리자’의 뜻을 가진 다의어인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와 같은 종교-문자의 관련성은 각 종교가 경전을 신성시하는 태도가 경전을 넘어 그 경전이 쓰인 문자 자체를 신성시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전의 내용과 경전의 글자 자체를 신성시하고 다른 문자를 종교적으로 배격하여 그 문자와 문화를 멸절시킨 예들이 역사적으로 다수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기독교도들인 스페인 정복자들이 멕시코 지역의 마야제국을 침범하여 초기에는 종교 등 특정 장르에서 현지의 그림문자 사용을 금지하였다가 점차 법률, 행정 문서

등을 모두 로마자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그림문자를 소멸시킨 것은 물론 중남미 문화 전체를 파괴한 사례를 들 수 있다(Boone 2008 : 278).

또한 현대 세계에 와서도 세계적으로 문자 사용의 분포를 보면 종교와 문자의 밀접한 관계가 잘 드러난다. 이들 중 몇 가지 대표적인 경우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3) 문자의 종교적 대표성

로마자:	로만가톨릭	팔리문자:	불교
키릴문자:	동방정교	구르무키문자:	시크교
아랍문자:	이슬람교	히브리문자:	유대교
한자:	유교	티벳문자:	라마교
팔라비문자:	조로아스터교		

종교와 문자의 밀접한 관련성이 매우 첨예하게 드러나는 사례는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 집단들이 서로 종교가 다른 경우에 자신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서로 다른 문자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콥트문자를 개발하였으며, 시리아의 기독교인들은 세르토문자를, 이란의 기독교인들은 네스토리안문자를 사용하여 주변의 타 종교인들과 자신들을 차별화하였다. 또한 크로아티아인과 세르비아인들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로마가톨릭 교도들인 크로아티아인들은 라틴문자를, 동방정교회 교도들인 세르비아인들은 키릴문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종교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문자의 역할을 잘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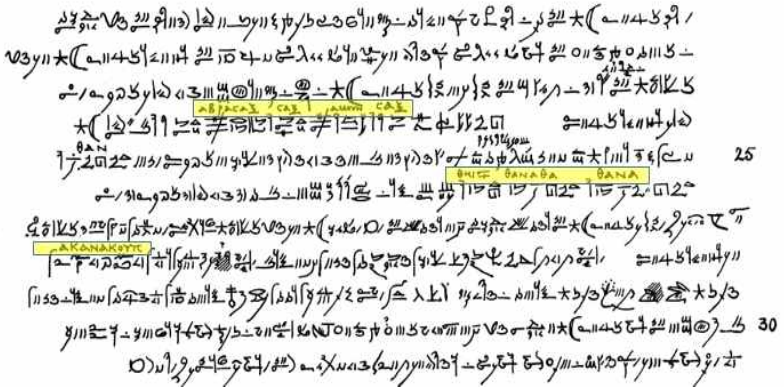
3.3. 문자의 차용과 혼용

통상적으로 한 언어사회는 단일민족 단일문화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보다는 다민족 다문화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문자체계 자체가 차용되고 혼용되는 경우는 빈번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기원전 1380~1346년경의 유물인 히타이트왕국의 수필루리우마 1세(Suppiluliuma I)의 인장에는 두 가지 문자체계로 병기된 이중언어(biscriptual & bilingual) 표기가 나타난다. 히타이트왕국이 팽창하면서 피지배인들에게 의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정치·사회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앞에서 살펴본 문자체계의 변환의 경우에도 해당 사회는 새로운 체계로 정착될 때까지 과도기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이중문자 체계로 표기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한 자신만의 문자를 갖고 있지 않은 언어 집단이 다른 문자를 차용해 오는 경우에는 언어적 차이에 의해 복수의 문자체계가 혼용되는 경우들이 나타나는데 고대 한국의 이두나 일본어의 간지, 가나의 경우가 그 예이다.

한국적 맥락, 특히 한글과 한자의 병기 문제와 관련지어 보면, 문자체계의 혼용보다는 문자의 혼용, 특히 문자 병기가 더 관련성이 높다. 즉, 한 언어 내의 문자 표기에 하나 이상의 문자가 사용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예는 역사적으로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예 중에는 2세기~3세기경의 주술적인 파피루스 문서가 있다(Stadler 2008 : 160). 이 문서는 동일한 내용을 이집트의 민중문자(demotic)와 그리스문자로 써놓은 이중언어 문서인데 그 중에 민중문자로 쓰인 단락에 나타나는 외래어 또는 외국어 단어 위에 그리스문자를 병기해 준 것이다(따라서 문자의 배열 방식이 일본어의 후리가나와 유사하다). 이와 같은 병기는 언어적 동기가 있는데, 민중문자는 모음이 없어서 외래어를 표기할 때에 자음만 표기되기 때문에 해당 언어 사용자들은 그 외래어의 정확한 발음을 알 수 없다. 따라서 정확한 발음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모음 글자가 있는 그리스문자를 병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4) 이중언어 병기 표기된 파피루스 문서(Stadler 2008 : 160 발췌; 민중문자 위에 그리스 문자 병기가 24, 26, 28행에 나타남)



현대에 있어 문자의 혼용이 가장 두드러진 예는 일본어의 경우인데 이것은 뒤의 4.3에서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3.4. 문자의 소멸

역사적으로 볼 때 언어의 소멸과 마찬가지로 문자도 소멸된 사례가 많은데, 문자의 소멸은 대개 언어의 소멸, 국가와 같은 정치단위의 소멸, 문화나 문명의 소멸, 정체성 소멸 등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그 원인이다(Baines 2008 : 351). 또한 학문적인 변화도 문자의 소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국가의 소멸에 따른 문자의 소멸의 예는 역사적으로 매우 많다. 바빌론 지역을 중심으로 확장되었던 제국들이 사용하여 2500년 간이나 지속되었던 수메르문자와 아카드문자는 페르시아의 정복에 의해 바빌론이 폐허화됨에 따라 문자도 소멸되었다(Brown 2008 : 80). 역사적으로 더 최근의 예로는 만주문자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만주문자는 원래 1599년 누르하치의 명령으로 몽골문자를 만주문자로 개발한 것이다. 250년간 지속된 청나라 제국이 1911년 패망함과 더불어 더 이상 만주문자를 가르치지 않게 되자 만주문자는 자연스럽게 소멸되었다.⁸⁾ 특히 만주문자의 소멸은 정체성의 소멸과도 관련되어 있는데, 외부 민족인 만주족이 중국의 한족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만주족이 한족문화에 동화되면서 만주족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고 따라서 만주족의 정체성을 표시하는 만주문자에 대한 애정도 사라지게 되면서 만주문자는 사라지게 된 것이다.

또한, 문자의 소멸은 학문 체계의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문명은 현대적인 기준에서도 놀라우리만큼 획기적인 학문의 발전을 이룩하였다. 특별히 천문학의 발달은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었는데 이러한 학문적 지식은 모두 설형문자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설형문자로 기록되어 있던 천문학과 점성술 등 발달된 지식이 알파벳문자로 대량 번역되고 일반인은 물론 학자들까지도 사용이 편리한 알파벳문자를 선호하게 됨으로써 설형문자를 배우는 사람들이 감소하고 학문 체계 자체가 바뀌게 된 것이다(Brown 2008 : 94, Houston et al. 2003 : 456). 문자생활, 문자의 존폐에 미치는 학자들의 영향을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예는 이집트의 민중문자의 경우이다. 상형문자였던 이집트의 신성문자(hieroglyph)는 사제들이 사용하던 신관문자(hieratic)를 거쳐 점차 매우 간소화된 민중문자(demotic)로 발전하게 되었다. 문자의 간소화는 일반 대중들의 문자에 대한 접근성을

8) 소수의 사람들이 아직 만주문자를 사용함으로써 변경에 잔존하고 있으나 공식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한 심사자에 따르면, 시버족(錫伯族)이 만주문자를 사용하는 지역은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찹찰 지역이라 한다. 심사자의 조언에 감사드린다.

높여 주었다. 그러나 이집트의 특권층이었던 사제들은 상형문자와 민중문자를 섞어서 매우 어려운 문자체계를 만들어 내어 자신들을 제외한 일반 대중들은 이를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 따라서 대중들은 자신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러한 문자는 불필요하며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 문자에 대한 정체성이 없어지게 되었다. 결국 사용자가 줄어든 문자는 생존할 수 없게 되어 소멸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Stadler 2008 : 158~159, 174). 이는 지식인들이 당시 사회적 변화나 대중의 필요와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문자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떨어뜨려 자신들만이 문자 사용의 특권을 누리려 하다가 문자 자체를 사라지게 만든 사례이다.

4. 한국적 맥락 속의 문자체계

이제 한국적 맥락에서 문자체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해너스(Hannas 1997 : 299), 분치츠(Bunčić 2016 : 43) 등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동아시아의 국가들의 문자체계는 다른 곳과는 다른 특별한 양상을 띠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고유한 한글 이외에도 한자를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사회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물론 한글과 한자 병기를 주장하는 이들도 한글을 보존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고 한다(심재기 2016 : 1~2 참고). 여기서는 한글에 대한 문자학자들의 평가, 한자의 다양한 언어학적 특성, 한자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사례라 할 수 있는 일본의 경우 등을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한자 병기의 쟁점에 초점을 두어 문자학과 인지심리학의 연구 성과들에 비추어 한국의 문자 사용에 논의해 보고, 한국어의 표기에 한자를 병기하거나 혼용하는 것이 불필요할 뿐 아니라 불리한 일임을 보이고자 한다.

4.1. 한글의 평가

문자는 대개 역사적으로 서서히 변해 가고 기존의 사용 방식에서 획기적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문자체계는 늘 체계성이 부족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문자개혁은 늘 미봉책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콰인(Quine 2013[1960])은, 철학자 노이라트(Neurath 1932 : 206)가 과학에 대해 “우리의 상황은, 마치 배를 도크로 들여와 처음부터 새로 조립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한 상태로, 넓은 바다 한 가운데서 배 널빤지를 하나씩 뜯어내어 새로 배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선원들의 상황과 같다.”고 한 말을 빌려 문자를 만들어 내거나 개혁하는 일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일임을 설명하고 있다.⁹⁾ 노이라트의 배는 쿨머스(Coulmas 2003 [1999] : 169)의 한글에 대한 평에서도 등장한다. 즉, 그는 한글의 많은 탁월성 중의 하나가 통일성과 체계적 순수성(Coulmas 2003 [1999] : 168)이라고 평가하면서, “한글은 바다로 진수시키기 전에 도크에서 세밀하고 완벽하게 만들어진 배와 같은 아주 드문 예이다.”¹⁰⁾라고 말하였다.

이들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언어학자들이 한글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포스(Vos 1964 : 31)는 “세계 최상의 알파벳”이라 평하였고, 라이샤워(Reischauer 1960 : 435)는 “아마도 가장 과학적 문자체계...(perhaps the most scientific system of writing...)”라 하였으며, 샘슨은 한국인들이 한글을 최고

9) “Wie Schiffer sind wir, die ihr Schiff auf offener See umbauen müssen, ohne es jemals in einem Dock zerlegen und aus besten Bestandteilen neu errichten zu können.”(Neurath 1932 : 206)

10) “Hang’ül is the rare exception of a boat carefully designed and built to completion in the dry dock before it was launched.”(Coulmas 2003[1999] : 169)

의 글자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든지 관계없이 한글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인류의 위대한 지적 업적의 하나로서 자리를 차지할 것이 틀림없다.”¹¹⁾고 하였다.

4.2. 한자와 중국어

한자는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다. 여기서는 한글과 비교하여 몇 가지 주요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한자는 문자 분류학적으로, 고대 이집트의 상형문자와 더불어 표어문자에 속하여 글자 하나가 하나의 의미를 가지며, 현대에 사용되는 문자들로는 유일한 표어문자이다. 중국어 발음에 사용되는 음소는 5개의 모음과 22개의 자음으로 이를 조합하여 약 400개의 음절을 만들 수 있고 여기에 성조의 변화를 주어 약 1,300여개의 음절을 만들 수 있다(Duanmu 2006). 그러나 언어에서 사용되는 단어의 수는 이보다는 훨씬 많아야 되므로 필연적으로 동음이의어가 매우 많고 이들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글자를 달리 해야 한다.¹²⁾

한자는 원래 기본적으로 그림문자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자형이 매우 복잡한데다가 이처럼 동음이의어로 인해 글자를 달리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글자가 많고 복잡하여 한자를 배우는 일은 힘든 일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1964년 한자를 간략하게 만든 간략체 2,238개를 발표했고, 이중 일부의 개정을 포함한 800여 글자의 간소화 안을 1977년에 발표하였다가 사용자들의 혼란과 반대에 부딪혀 1986년에 공식적으로 취소하고, 1차 발표 간략체 일부를 수정한 목록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같은 중국

11) “Hang’ül must unquestionably rank as one of the great intellectual achievements of humankind.”(Sampson 1985 : 144)

12) 물론 다음절 단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해결 전략이다.

어를 사용하면서도 정치적인 입장이 다른 대만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복잡한 상황은 중국인의 언어생활에 있어서 문자가 얼마나 큰 난제인가를 잘 보여준다.

더 나아가 중국어의 음운 현상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중국어의 음운체계가 역사적으로 간소화되는 변화를 겪었다는 것이다. 이 간소화 과정에는 자음군의 단일자음화, 어미 폐쇄자음 탈락, 유·무성의 차별 소실, 모음체계의 단순화 등 “막대하고도 반복적인 상실”(Sampson 1985)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고대중국어와 현대중국어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음운적 중화현상이 일어나 동음이의어가 놀라울 정도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¹³⁾

(5) 현대중국어 ‘ch’의 동음이의어(Sampson 1985 : 169에서 발췌하여 일부 번역하고 추가한 것임)

글자	의미	고대중국어	현대중국어	현대한국어
欺	속이다	*k ^h jæg	c ^h ī	기
期	때, 기간	*kjæg	c ^h ī	기
崎	거친, 험한	*g ^h ia	c ^h ī	힘
溪	개울	*k ^h ieg	c ^h ī	계
七	일곱	*ts ^h jēt	c ^h ī	칠
沏	(차를) 갈다	*ts ^h jēt	c ^h ī	절
漆	옷칠	*ts ^h jēt	c ^h ī	칠
妻	아내	*ts ^h iər	c ^h ī	처
悽	슬퍼하다	*ts ^h iər	c ^h ī	처
棲	왜(에 앉다)	*siər	c ^h ī	서
戚	친척	*ts ^h iok	c ^h ī	척

13) 이처럼 동음이의어가 많은 것은 발음에 기초한 중국어 사전을 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표제어 4만 단어 수준의 작은 사전인 랑엔 사이트(Langenscheidt, 2005) 사전만 보아도 성조 구분 없이 /ji/에 해당하는 중국어 단어를 찾아보면 27개나 된다.

이와 같은 현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한자는 중국어의 음절구조 체계와 음운론적 특징에 의해 근본적으로 동음이의어가 많고, 이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문자를 사용함으로써 전체적인 글자 수가 많게 되었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 역사적으로 간소화되는 음운변화에 의해 동음이의어는 더욱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동음이의어를 문자로 구별하다 보니 구어로 대화할 때에 지식인들은 중의성 해소를 위해 대화 도중 때때로 허공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는 일도 있다고 한다(Sampson 1985).

4.3. 한자와 일본어

현존하는 문자체계 중 일본의 문자체계처럼 복잡하면서도 특이한 예는 없다. 일본어 표기 방식에 대해서도 주목할 점이 많이 있지만, 여기서는 한자 병기라는 주제의 논의에 관련된 내용만 살펴보기로 한다.

잘 알려진 대로 일본어의 표기에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그리고 한자인 간지가 사용되며, 로마지라 하는 로마자도 간혹 함께 사용된다.¹⁴⁾ 가타카나는 9세기에, 히라가나는 10세기에 발달된 것으로 모두 한자에서 유래한 것이며, 히라가나는 함께 쓰이는 한자에 보조적으로 쓰이도록 구상되었고, 가타카나는 한자를 동반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적으로 소리에 기초한 표기 방식이다(Coulmas 1999). 여기서 특별한 것은, 일본이 한자를 받아들여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즉, 일본은 한자를 들여와 한자 고유의 의미 기능을 채택한 외에도 한자를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재해석하고, 발음만을 차용하기도 하고, 문자를 응용

14) 그러나 어린이들의 도서에는 한자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Bunčić 2016b : 70).

하여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발달된 문화를 숭상하는 중화주의의 입장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자어 단어가 많을 뿐 아니라 한자를 반복적으로 차용하여 시기마다 다른 한자어의 발음과 기능을 채택하였으며 따라서 읽는 방법이 다양하고 문맥 의존적이다.¹⁵⁾ 예를 들어, 중국어 한자 ‘明(min ‘밝은’)'의 한자식 발음은 /myo/, /mei/, /min/ 등이 있는데 이는 각각 6세기, 8세기, 14세기 중국어의 영향이며, 일본식 발음은 /a/, /aka/ 등이 있다(Coulmas 2003 [1999] : 181). 또한 한자 ‘日’은 /nichi/, /jitu/ 등의 한자식 발음 외에도 일본식 발음은 12개나 된다. 이는 한자를 오음(吳音; go-on), 한음(漢音; gan-on), 당음(唐音; to-on) 등 한자식으로 읽는 음독(on-yomi)과, 뜻에 따라 일본식으로 읽는 여러 가지의 훈독(kun-yomi)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쓰여 있는 글씨에는 독자가 어떤 방식으로 읽어야 할지에 대해 전혀 단서가 없기 때문에 어휘에 대한 자신의 지식에 비추어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득이한 경우, 다음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심자들이 잘 읽을 수 있도록 이른바 후리가나(振り仮名)를 사용하여, 한자를 특정한 방법으로 읽도록 지시하기도 한다.

(6) ^{やまみち}山路を登りながら、こう考えた。

yamamichi-o noborinagara kou kangaeta

‘산길을 오르며 나는 이런 생각을 했네.’

(Coulmas 2003[1999] : 182 참고)

위의 예에서 시인 나쓰메 소세키(1867~1916)는 “山路”를 yamaji

15) 시바타니(Shibatani 1990)의 연구에 따르면 일본어 내 한자어 비율은 연예잡지 35%, 신문 50%, 과학저널 60%에 이른다고 한다.

라 읽지 말고 yamamichi로 읽도록 “やまみち”라는 토를 후리가나로 달아 놓은 것이다.

또한 일본어는 음절구조가 중국어보다도 간단하고 성조도 없기 때문에 차용된 한자어가 일본어에서 음독으로 읽힐 때 대대적인 음운적 중화가 생긴다. 예를 들어, 일본어에서 /kan/이라고 읽히는 한자를 중국어 발음과 의미, 한국어 발음과 함께 나열해 보면, 甘(kān, ‘달콤한’, 감), 感(kǎn, ‘느끼다’, 감), 刊(kān, ‘인쇄하다’, 간), 慣(guàn, ‘익숙하다’, 관), 觀(guān, ‘보다’, 관), 勘(kān, ‘헤아리다’, 감), 緩(xuǎn, ‘느린’, 완), 管(guǎn, ‘대롱’, 관), 鑲(xuān, ‘고리’, 환), 歡(xuān, ‘즐거다’, 환), 卷(cuàn, ‘책’, 권), 韓(xán, ‘한국’, 한), 漢(xàn, ‘중국’, 한) 등 14개 이상이나 된다(Sampson 1985 : 178을 참조하고 조정함).

이와 같이 원래 동음이의어가 많은 한자어를 들여와 동음이의어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다가, 일본어의 음운, 음절구조상 특징에 의해 동음이의어가 더 많아진 상황에서, 일본인들도 모호성을 줄이기 위해 중국인들과 유사한 방식을 사용한다. 즉, 대화 도중에 상대방이 볼 수 있도록 손바닥이나 허공에 한자를 쓰는 일(공서; 空書; kūsho/karagaki)이 많다고 한다(Sasaki 1984, 1987. Sasaki & Watanabe 1983, 1984).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본어 문자체계의 복잡성은 간지(한자)의 사용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자를 완전히 폐지하고 가나 또는 로마자로 대체하려는 시도는 18세기 초반 도쿠가와 집권기의 아라이 하쿠세키(1657~1725)와 18세기 중반의 승려 몬노(1700~1763)의 주장을 비롯하여(Hannas 1997 : 39), 1880년대 모리 아리노리(1847~1889)와 토야마 마사카즈(1948~1900)의 시도 등을 포함해 여러 차례 있었다(Kaske 2006).¹⁶⁾ 그러나 문자의 발음의 다양성, 매우 많은 동음이의어, 전산화의 비효율성에도 불구하고

하고 정치·사회적, 역사·문화적 요인들로 인해 더욱 간소화된 체계는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대 일본어 문자 체계는 가타카나, 히라가나, 간지, 로마지가 섞여 있는, 현존하는 유일의 혼합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복잡한 체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문자 해득률은 매우 높다. 예를 들어, 미국 중앙정보국의 자료(CIA World Factbook)에 따르면 2014년 1월 현재 일본의 문자 해득률은 99%이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실제 문자 해득률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드프랜시스(DeFrancis 1984 : 60)는 간지에 대한 일본인들의 수동적 인식률은 높으나 능동적으로 쓰는 능력은 부족하고, 사람들은 간지를 쓰는 것을 번거롭게 여겨 비공식적인 글은 가나로만 쓰기도 한다고 하였으며(Bunčić 2016c : 145에서 재인용), 더 나아가 일본학 전문가인 옹거(Unger 1987)는 일본인 거의 모두가 문자를 해득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겉으로만 그럴 뿐, 실제로 그들이 읽는 것을 자세히 보면 주로 값싼 소설, 그림이 많이 들어 있는 잡지, 문법과 어휘가 매우 고정되어 있는 신문, 거의 글이 들어 있지 않은 만화책 정도이며, 실제로 진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저서를 출간하는 출판사들은 파산을 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Hannas 1997 : 285에서 재인용). 만일 이러한 평가가 사실과 부합한다면 간지(한자)의 난해함이 그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아도 어긋남이 없을 것이다.¹⁷⁾

16) 일본의 문자체계 개혁의 시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해너스(Hannas 1997 : 39~47)에 잘 제시되어 있다.

17) 일본 문부과학성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배워야 할 간지를 규정해 놓고 있는데 학년별로 각각 80자, 160자, 200자, 200자, 185자, 181자를 배워 초등학교 6년간 1,006개의 간지를 배우게 한다. 2010년 문부과학성에서 지정한 상용한자(jōyō kanji)가 2,136자이며, 통상 지식인이 5,000자 정도를 사용하는 것에 비하면 문자자체를 배우는 것 자

4.4. 한자 병기의 쟁점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글과 한자를 병기해야 한다는 주장의 요지는 2016년 4월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한자 병기 찬성 변론(심재기 2016)에 잘 드러나 있다. 이 변론의 요지는 한자는 국자이며, 한자어가 국어 어휘의 핵심 요소라는 것, 즉, 한자가 한국인의 문자이며 한국어 단어의 구조나 어휘의 비율로 보아 한자가 중심이라는 것이다. 이 외에도 국한문 혼용이나 한자의 병기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한자를 사용하면 동북아시아 교류에 도움이 되며, 언어 다양성 보존에도 도움이 되고, 전통문화 이해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¹⁸⁾

이러한 주장의 부당성은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참고인 변론인 권재일(2016)에서 소상히 다루어지고 있다. 변론을 요약하면, (ㄱ) 한자어를 한자로 표기해야 이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다. (ㄴ) 공공의 글쓰기에서 국한문 혼용은 오히려 정보 접근성의 불평등을 초래한다. (ㄷ) 한자를 아는 것과 중국어를 아는 것이 다르며, 한자를 배우는 것이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ㄹ) 한자는 중국 글자이지 한국에서 오래 썼다는 이유로 한국 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ㅁ) 한자 학습이 언어 다양성을 촉진한다는 주장은 언어와 글자를 혼동하기 때문에 생긴 오해이다. (ㅂ) 전통 문화 계승을 위해 고전을 이해하는 것이 몇 천 자 정도의 한자 지식으로는 불가능하다. (ㅅ) 오히려 한글 전용은 글자생활의 과학화와 정보화에 도움이 된다.

이 글에서는 한자 병기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한글을 보존 받

체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지를 알 수 있으며 불과 수시간 또는 수일 만에 한글을 배울 수 있는 것과 큰 대조를 보인다.

18) 헌법재판소는 2016년 11월 24일의 판결에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국한문 혼용을 위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전시키는 데에 오히려 역기능이 있다는 것을 위의 논의에 추가하고자 한다. 특히 한자 병기를 주장하는 이들의 중요한 주장은 한자 병기가 읽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므로, 읽기와 관련된 심리언어학적 연구 결과와, 사회문화적 측면, 과학기술적 측면에서 한자 병기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4.4.1. 인지·심리적 정보처리의 측면

우선, 한국어에서 사용하는 한자어들이 동음이의어들이 많기 때문에 글을 읽는 사람이 그 동음이의어의 의미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병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이 주장은 매우 단순한 오류에 기반을 둔 것인데, 즉 글 읽기란 단지 눈에 비친 글자 이미지를 머릿속 사전에 대응시켜 호출해 내는 단순한 작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때 대응되는 어휘부 항목이 여러 개가 되면 뜻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혼동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언어 정보처리 연구와 심리언어학 연구에 따르면 읽기란 그렇게 단순한 피동적 행위가 아니다. 독자에게 있어서 글 읽기는 눈에 보이는 단어를 기억 장치 내의 구조체와 대응시키기, 문맥에서 단어들을 예측하기, 음운적으로 단어를 재생해 내기 위해 글자와 음소의 대응관계를 찾기, 알고 있는 유사한 단어로부터 모르는 단어의 의미를 짐작하기, 알고 있는 유사한 단어의 발음으로부터 모르는 단어의 발음을 짐작하기, 주어진 글자 정보로부터 가능한 모든 형태소들을 분석해 내기, 주어진 문자적 의미 이외에 글쓴이의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기 등 다양한 언어 층위의 전략을 펼치는 능동적 행위인 것이다(Coulmas 2003[1999], Taft 1987 등).

이와 관련하여 잘 알려진 인간의 정보처리 방식은 맥락에 의존하는 강력한 하향식 정보처리(top-down processing)에 실제 주어진 정보에 의존하는 상향식 정보처리(bottom-up processing)가 결

합되어 있는 방식이다. 한 예로, 이른바 점화 효과(priming effect)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하향식 정보처리를 통해 많은 것들을 예측하고, 상향식 정보처리를 통해 쓸데없는 정보들까지도 일일이 활성화해 두었다가 나중에야 불필요한 가능성들을 배제한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¹⁹⁾ 따라서 글을 읽다가 중의성이 있는 한 단어에 부딪혀 이해에 장애가 온다고 믿는 것은 매우 순진한 발상이다. 예를 들어, /사자/로 발음될 수 있는 한자어로는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들을 제외하고는 대개 ‘使者, 死者, 獅子, 四子, 寫字’ 등을 떠올릴 수 있지만 이 단어들을 ‘사자’라고 글로 썼을 때에 의미적 중의성으로 인해 해당 문장이 이해가 어려운 경우는 없을 것이다. 어떤 언어의 사전을 보더라도 언어에는 모두 동음이의어와 다의어가 다수 있어서 독립된 단어만을 제시했을 때에는 정확한 의미를 찾기 어렵기 마련이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주는 것은 아닌 것이다.

동음이의어의 뜻을 분명하게 표시하기 위해 어원을 밝혀주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는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의 예를 들어보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 영어는 다른 언어로부터 유래한 단어가 많아 영어 어휘 중 토착어는 26%에 불과하며, 어원별로 라틴어와 프랑스어가 각각 29%, 그리스어가 6%를 차지한다. 따라서 영어에도 어원이 다른 동음이의어가 많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영어의 ‘skate’란 단어는 ‘스케이트’를 가리키기도 하고 ‘홍어’를 가리키기도 하는 동음이의어이다. 스케이트를 가리키는 ‘skate’는 1660년대 화란어 ‘schaats’에서 들여온 것이며, 홍

19) 점화 효과에 대하여는 초기 연구인 마이어와 샤바네벨트(Meyer & Schavaneveldt 1971), 넬리(Neely 1977), 베커(Becker 1980) 등을 참고할 수 있고 일반적인 소개에 대하여는 케롤(Carroll 2008; 제5장)을, 한국어에 대한 논의로는 박창호(2009), 이재호·김성일(2009)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어를 가리키는 ‘skate’는 14세기 중반 고대 스칸디나비아어의 ‘skata’에서 가져온 것이다. ‘bark’라는 단어도 ‘짚다’라는 뜻은 원시 게르만어 *‘berkan’에서, ‘나무껍질’이라는 뜻은 원시 게르만어 *‘barkuz’에서, ‘작은 배’라는 뜻은 후기 라틴어 ‘barca’에서 유래한 것이다. 또한 ‘hail’이란 단어는 ‘우박’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로 고대 영어에서부터 쓰였는데 그리스어의 ‘등근 조약돌’을 가리키는 ‘κάχληξ’에서, ‘환호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로는 1200년경부터 쓰였는데 고대 스칸디나비아어의 ‘건강, 행운, 번영’을 나타내는 ‘heill’에서 온 것이다(Oxford English Dictionary; Online Etymology Dictionary).

그러나 이 단어들이 쓰일 때 해당 어원을 밝혀 적는 것은 의미적 중의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영어의 독자들이 대개 그 어원어의 단어나 표기(문자)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한자 병기가 중의성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주장은 독자가 이미 한자를 충분히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므로 논리적으로 볼 때 한자교육이 한글교육에 선행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중의성을 해소하기 위해 어원을 밝혀 줄 필요가 없는 것은 대개의 경우 독자는 이미 통사적인 정보(품사 등)와 의미적인 정보(문맥)로부터 충분한 해석의 단서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정보처리와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이른바 새도잉(shadowing)이라 부르는 ‘남의 말 따라 하기’의 연구 결과이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즉시 따라하도록 하는 이 실험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목표 발화를 대개 0.5~0.8초 뒤따라가는데 능숙한 사람들은 0.3초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으며 때로는 앞 사람의 말보다 빨리 말을 마치기도 한다. 그런데 새도잉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따라해야 할 말에 문법적인 오류가 있으면 그

오류를 고쳐 가면서 말하고, 심지어는 오류가 있을 경우 오류가 있는 대로 말하라고 지시를 해도 그 오류를 고치는 일을 중단하지 못한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 이것은 언어를 처리하는 사람이 단순히 자기가 수동적으로 듣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닌, 문맥에 의존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짐작을 해가면서 능동적으로 정보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²⁰⁾ 비록 이것이 듣고 말하기에 관련한 정보처리 현상이지만 읽고 이해하기에 대해서도 언어 정보처리라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전적으로 읽기에 대한 연구에서도 중요한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다. 안구 추적(eye-tracking) 연구들에 따르면 글을 읽을 때에 독자의 눈은 한 단어씩 순차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순간운동(saccade)이라 부르는 매우 빠르고 단속적인 움직임으로 글을 읽어나가는데, 고정된 안구는 대략 초점 글자로부터, 로마자를 기준으로 4~5 글자를 정확하게 보지만, 약 0.2초 정도 지속되는 일련의 순간이동으로 매 순간이동 당 최대 20개 글자까지 훑어 읽어나간다. 그런데 이 안구 순간이동은 앞으로뿐만 아니라 이미 읽었던 부분으로도 되돌아가기를 반복하는데, 연구에 따르면 통상 15% 정도의 독서 시간이 뒤에 있는 글을 다시 보기 위해 돌아가는데 쓰이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Sereno & Rayner 2003, Rayner 외 2008, 2010). 이러한 정보처리 방법은 글을 읽는 사람이 매우 다양한 인지전략을 사용하여 주어진 글을 앞뒤로 폭넓게 동시에 파악해 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심리언어학적 연구들이 보여주는 것은, 인간의 언어

20) 맥락 효과와 새도잉에 대하여는 초기 연구인 밀러 외(Miller 1951), 폴락과 피켓(Pollack & Pickett 1964), 밀러와 이사드(Miller & Isard 1963), 말슨윌슨과 웰쉬(Marslen-Wilson & Welsh 1978) 등을, 일반적인 소개에 대하여는 캐롤(Carroll 2008; 제4장)을 참조할 수 있다.

정보처리 방식을 ‘하나 읽고 하나 파악하고, 그 후에 다시 다음 하나 읽고 하나 파악하는’ 식의 단선모형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상황, 문맥, 의미, 문장, 단어, 형태소, 소리/글자 등 다양한 층위에서 동시에 정보를 처리하는 다층모형으로만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초기의 <Reicher 1969>를 비롯하여 다수의 연구가 있음).

뿐만 아니라, 글을 읽을 때에 자신이 아는 단어에 한자가 병기되어 있을 경우 오히려 읽기에 방해가 될 수 있다. 글을 읽는 사람에게는 불필요한 정보가 단순한 불필요성을 떠나 오히려 효과적인 글 읽기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글쓰기에서 글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부차적인 요소들은 문장 내에 두지 않고 해당 쪽의 아래에 각주로 붙이거나 글이 끝난 맨 뒤에 미주로 몰아 두기도 하는 것이다. 초등학교 또는 초중등 교과서를 대상으로 한자 사용과 관련된 실제 사례 연구를 보더라도 한자가 오히려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방해가 된다는 내용이 보고되어 있다. 즉, 허민(2016)의 연구에 따르면 초중고 교과서에 사용되는 한자계 수학 용어 대부분이 해당 한자의 어원과 관계가 없거나 의미가 달라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도리어 방해가 된다고 보고 있으며, 이견범(2016)의 연구에 따르면, 초등교과서의 한자어를 한자 어원과 비교해 본 결과 상관성이 31% 이내에 불과하며 70% 정도는 어원과 상관성이 없거나 어원이 동어 반복이거나 상관성이 낮은 한자어로 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이창덕 2016에서 재인용). 또한 현장에서의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학생들은 한자가 있을 경우 독서의 흐름이 끊어지고 읽기가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이정우 2016).

특히 이러한 독서 과정의 방해 효과는 한자와 한글이 문자학적으로 각각 다른 유형에 속한다는 점에서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한자(간지)와 가나를 섞어서 쓰고 있는 일본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일본인들은 이 두 가지 문자체계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즉, 의미에 기초한 문자인 간지는 우뇌에서 처리되고 음성에 기초한 문자인 가나는 좌뇌에서 처리된다는 것이 좌뇌 또는 우뇌의 반구 손상이 있는 환자들의 연구를 통해 발견되었으며, 반구 손상이 없는 일반 사람들의 경우에도 간지는 우뇌에서 더 신속하게 처리되고 가나는 좌뇌에서 더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것이다(Sasanuma 외 1977, Hatta 1977, 1978, Sasanuma 1980, Feldman 외 1980, Besner 외 1982, Bussing 외 1987 등 다수의 연구). 이것은 좌뇌가 언어 모듈이 있는 곳이며 우뇌가 그림 모듈이 있는 곳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가나는 글씨로, 간지는 그림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처럼 한자(간지)와 가나가 섞여 있는 일본어의 문자체계에 대한 심리언어학적, 뇌신경언어학적 연구가 다수 이루어져 있는 데 비해 아직 한글과 한자가 섞여 있는 글에 대한 연구는 학계에 많이 보고되지 않았으므로 일반화할 수는 없으나, 한글과 한자로 쓰인 글에도 표어문자와 표음문자가 혼합된 글이라는 점에서는 일본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²¹⁾

뿐만 아니라 인지적으로도 한자는 기억에 큰 부담을 주는 문자 체계라는 점이 많이 연구되어 있다. 중국어 사전은 통상 40,000~60,000개의 글자를 등재하고 있는데, 인간이 일반적인 상태에서 표어문자를 기억할 수 있는 한계 숫자가 6,000~7,000개라는 점을 고려하면(Zhou 1991 : 7, Hannas 1997에서 재인용), 한자와 같은 표어문자는 인지적으로 크게 부담을 주는 체계이다. 따라서 해너

21) 한글과 한자가 혼합된 경우를 연구한 것은 아니나, 한국, 일본, 중국의 원어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글, 한자, 간지 단어의 명명 과제를 분석한 박권생 외(2008)의 연구에서는 한글을 명명하는 속도가 한자나 간지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빨랐음을 보고하고 있다.

스(Hannas 1997 : 131~132)는 중국어에서 문해력이 있다고 보려면 4,500개의 한자를 아는 정도라고 추산하면서, 이 정도 수준에서도 책 한 면을 읽을 때마다 4~5회 정도 사전을 찾아봐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한자는 중국 원어민에게도 어려운 문자 체계인 것이다.²²⁾

이처럼 인지적으로 부담이 되는 한자를 공공의 읽기와 쓰기, 특히 초등학교 교과서에 도입한다는 것은 교육적으로 매우 부적합한 일이 될 것이다. 한자의 사용을 거의 피할 수 없는 일본에서조차 아동용 도서에는 간지를 사용하지 않는 교육적 배려를 하는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초등학교에서부터 한자를 병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큰 대조를 이룬다.

4.4.2. 사회문화적 측면

한자 병기가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가지는 중요성은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다. 한글 전용을 주장하는 이들과 한자 병기를 주장하는 이들 모두 한글을 잘 보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 한다. 앞선 논의(3.4)에서 밝힌 바와 같이 문자의 소멸은 정체성의 소멸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Baines 2008). ‘제대로 된 언어는 자기 문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인도인들이 데바나가리문자를 사용하는 힌디어와 페르시아계 아랍문자를 사용하는 우르두어로 나눠져 된 것과, 이탈리아 반도에 존재하던 다양한 문자들이 로마자를 사용하는 로마가 흥왕하게 되자 그 사용자들이 자신의 문자에

22) 홍콩교육과정개발과(2006)에서 제시하는 초등학교 어휘 및 문자 목록에는 3,163개의 한자가 들어 있으며(Cheung 2008), 2007년의 개정 목록에는 2,357자가 들어 있다(Cheung 2011). 해너스가 추산하는 일반 문해력 수준이 4,500자인 것을 고려하면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치고도 문해력을 갖추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한 정체성을 버리고 더 ‘힘 있는’ 나라가 사용하던 문자에 동화되는 정체성 변화를 겪은 것은 앞(2.2)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글의 발전과 보존은 한국어 사용자들이 한글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규정하는지, 또한 한자를 얼마나 자신의 정체성으로 규정하는지와 관련이 있다. 2013년 11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연구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98.2%가 한글과 한국어에 자긍심을 느낀다고 답하였는데(문화체육관광부 2015 : 198) 이것은 국민의 거의 대부분이 한글을 자신의 정체성의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반해 한자를 한국인의 문자로 생각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한국인에 대한 통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자 병기를 주장하는 이들이 한자도 국자라고 주장하는 데에서만 그러한 태도를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사회문화적인 측면을 확대하면, 한자 병기에 따른 한자교육이 한국, 중국, 일본 3개국 간의 국제교류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을 살펴볼 만한데, 이는 앞에서 간략하게 설명한 바 있는 권재일(2016)에서 잘 설명되고 있어 더 자세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다. 즉, 같은 한자어라 해도 발음이 현저하게 다르고, 그 의미가 다르기도 하며, 단어가 다르기도 하고, 더 근본적으로 글자 자체가 다른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에서는 한자의 옛 글자체인 변체자를, 중국에서는 획수를 크게 줄인 간체자를, 일본에서도 획수를 줄인, 그러나 간체자와는 다른, 약체자를 사용한다. 이러한 차이는 다음 (7)의 예시에서 잘 드러난다.²³⁾

(7) 한국 변체(발음)	중국 간체(발음)	일본 약체(발음)
發 (발)	发 (fa)	発 (hatsu)
賣 (매)	卖 (mài)	売 (bai)

23) 도움을 주신 한국외대 김동규 교수께 감사드립니다.

龜 (귀)	龟 (guī)	龜 (ki)
齒 (치)	齿 (chǐ)	齒 (shi)
傳 (전)	传 (chuán)	伝 (den)
讀 (독)	读 (dú)	読 (doku)
關 (관)	关 (guān)	関 (kan)
歸 (귀)	归 (guī)	帰 (ki)

문자 보존의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지식인의 역할이 특별히 중요하다. 이미 앞선 논의(3.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자의 소멸은 학문 체계의 변화와 대중의 접근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발달된 학문의 성과들이 설형문자로 기록되었다가 알파벳문자로 대량 번역됨으로써 대중이 어려운 설형문자를 멀리하게 되어 소실된 역사로 알 수 있었다. 또한 이집트의 복잡한 신성문자가 편리한 민중문자로 간소화되었으나 지식인 계급인 사제들이 상형문자와 민중문자를 복잡한 방법으로 섞어서 대중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체계를 만들어 내어 결국 대중들이 등을 돌림으로써 문자가 소실된 예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례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문자의 존폐에 대한 지식인의 책임을 잘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들이다. 특별히 지식인들은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려는 욕구를 갖고 있고 지식의 과시는 지식이 독점될 때 더욱 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식인들은 자신의 지식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지 않으려 하는 문제가 있다. 이 점에 대해 피쉬먼(Fishman 1988 : 280)은 문자체계를 쉽게 하여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는 개혁은 기존 식자층을 따돌리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며, 쿨머스(Coulmas 2003[1999])도 문자체계의 개혁에 대해 그 방향이 항상 단순성, 우아함, 언어적 적합성을 지향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 한글이 정착되는 데에 500년 이상 걸린 예를 들고 있다. 즉, 단순성, 우아함 언어적 적합성만이 개혁의 기준이 된다면 한글은 이미

창제 이후에 즉시 정착이 되었을 것이라는 말로 해석된다. 이 개혁의 지체에 지식인들이 관여하고 있었음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다 시금 지식인의 책무를 일깨워주는 일이다. 바로 이 지식인의 현학적 태도 때문에, 비록 몇 개의 한자로 제한된 병기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일단 한자가 상용화되는 상황에 이르면 지식인층에서 어려운 한자들을 지속적으로 글에 포함시킴으로써 대중의 접근성을 낮추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4.4.3. 과학기술적 측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겔브(Gelb 1963[1952])는 문자가 표어 문자에서 음절문자로, 다시 알파벳문자로 발달한다는 단일방향성 가설을 주장한 바가 있다. 이러한 가설이 서구의 알파벳 중심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문자가 언어표상의 효율성을 높이는 체계로 발달해 온 것이 역사적 사실인 점에 비추어 보면 나름 타당성이 있는 가설이다. 특히 자질문자 체계는 알파벳문자 체계에서 더 발전한 것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한글의 체계 효율성은 단연 독보적인 것이다.

이러한 체계 효율성은 과학기술의 면에서 잘 드러난다. 특히 전산화의 측면에서 한자가 속도와 용이성에 있어서 로마자와 같은 알파벳문자보다 불리하다는 것은 필요한 글자 수가 방대하다는 점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다(Hannas 1997 : 279~281, Unger 1987). 현대에는 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전산 입력이 가능해졌지만 아직도 한자를 입력하는 일은 알파벳문자나 특히 한글을 입력하는 일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복잡하고 느리며 비언어적 중간 과정을 필요로 한다. 즉 최종적인 글자가 선택되어 입력되기까지 많은 중간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전자문서에 한자를 병기하게 되면 발음에 기초한 여러 가지 가능한 선택 사항을 불러올려

서 그 중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것을 버리는 복잡한 과정을 반복해서 거쳐야 하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자 병기 자체가 도움이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이것은 더욱 효율성에 크게 역행하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5. 끝맺는 말

문자는 언어와 더불어 그 사용자와 사용자 집단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화적 산물이다. 역사적으로 문자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면 많은 문자들이 소멸하였는데 그 배경에는 효율성, 편의성과 같은 내재적인 원인들뿐만 아니라, 정체성, 정치와 무역, 종교, 학문 체계 등 외재적인 원인들도 있다. 한글은 알파벳문자 체계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외형상 음절문자 체계로 쓰여 음절 구분이 잘 드러나고, 음성·음운적 자질이 표시되는, 현재 활발하게 사용되는 문자체계로는 세계 유일의 탁월한 자질문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이유로 인해 아직도 국한문 혼용이나 한자 병기를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이에 대해 이 글에서는 한자를 사용하는 중국, 일본의 문자체계를 살펴보고, 인지·심리적 정보처리의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과학기술적 측면에서 왜 한자어 사용, 한자 병기가 불필요하거나 해로운가에 대해 이론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글을 끝맺으며 히브리어가 겪은 역사적 사건을 상기해 보고자 한다. 히브리어는 기원전 10세기경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문헌 정보를 갖고 있는 오래된 언어 중 하나로서 서기 132~136년 유대의 반란이 로마에 의해 진압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어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진 이후 3~4세기경부터 구어로서는 사언어가 되었다. 이스라엘이 1948년에 건국되기까지 거의 1800여 년 동안

히브리어는 구약성서와 같은 문자언어로만 명맥을 이어온 언어였으나 이스라엘 건국 후 시오니즘과 더불어 다시 구어로 살아나게 되었다. 히브리인들이 자신들의 경전인 구약성서의 언어였던 히브리어 문자를 아끼고 보존하지 않았다면 이처럼 세계 역사에 거의 유일한 성공 사례인 사언어 복원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언어가 정체성을 이어주는 끈이라면 문자는 가히 쇠밭줄이라 할 것이다. 공기 중에 파동 에너지로만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구어에 비해 문자는 무한한 보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자를 보존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하며 문자를 아끼지 않으면 다른 문자에 의해 대체되고 만다는 것이 분명한 역사적 교훈이다.

〈참고 문헌〉

- 국립국어원. 2008. 「알고 싶은 한글」(웹문서). <https://www.korean.go.kr/hangeul/global/001.html> (2017.2.11. 접속)
- 권재일. 2016. 「국한문 혼용을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부당성」, 헌법재판소 참고인 진술문.
- 문화체육관광부. 2015. 「'13년~'14년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시행 결과 보고서」, 2015 정기국회 보고 자료.
- 박권생·이광오·아베 준이치·류잉. 2008. 「한자어의 표상과 처리에 관한 언어 간 비교 연구: 음운부호 생성과정」, 한국심리학회지: 실험 20-3. 한국심리학회. 179~202쪽.
- 박창호[Park, Changho]. 2009. Visual processing of hangul, the Korean script. In Chungmin Lee, Greg Simpson, & Youngjin Kim(eds.), *The Handbook of East Asian Psycholinguistics, Vol. III Korea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379~389쪽.
- 신상순(역). 2000. 『세계의 문자체계』(Sampson 1985 서지사항 참조).
- 심재기. 2016. 「변론개요」, 헌법재판소 참고인 진술문.

- 위키피디아. 2016. 「Mongolian writing systems」(웹문서). https://en.wikipedia.org/wiki/Mongolian_writing_systems (2017.2.11. 접속)
- 이건범. 2016. 「초등학교 속 한자말과 한자 어원 상관성 분석」, 570돌 한글날 맞이 한글문화 토론회: 쉽고 바른 언어문화 확산을 위한 학술회의 자료집. 한글문화연대. 91~131쪽.
- 이재호·김성일[Lee, Jae-Ho & Sung-Il Kim]. 2009. Sentence processing and memory representation in Korean. In Chungmin Lee, Greg Simpson, & Youngjin Kim(eds.), *The Handbook of East Asian Psycholinguistics, Vol. III Korean*.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442~453쪽.
- 이정우. 2016.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한자 병기 도입에 대한 비판적 논의」, 570돌 한글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71~91쪽.
- 이창덕. 2016. 「국어 어휘 교육과 초등교과서 한자 병기/표기에 대하여」, 570돌 한글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7~26쪽.
- 일본문부과학성. 現行学習指導要領·生きる力, 학년별 한자 배당표. http://www.mext.go.jp/a_menu/shotou/new-cs/youryou/syo/ko/ku/001.htm
- 허민. 2016. 「수학에 쓰이는 한자말에 대한 소고」, 수학교육논문집 30-2. 한국수학교육학회. 121~138쪽.
- 홍콩교육과정개발과(Hong Kong Curriculum Development Unit). 2006. Vocabulary and Character Lists for Hong Kong Primary Education. Education and Manpower Bureau: Hong Kong.
- 홍콩교육과정개발과(Hong Kong Curriculum Development Unit). 2007. Vocabulary and Character Lists for Hong Kong Primary Education. Education and Manpower Bureau: Hong Kong.
- Adishesiah, Malcolm S. 1990. *Illiteracy and Poverty*. UNESCO International Bureau of Education: Paris.
- Baines, John. 2008. Writing and its multiple disappearances. In

- John Baines, John Bennet, & Stephen Houston(eds.), *The Disappearance of Writing Systems: Perspectives on Literacy and Communication*. Equinox: London. 347~362.
- Becker, Curtis A. 1980. Semantic context effects in visual word recognition: An analysis of semantic strategies. *Memory & Cognition* 8. 493~512.
- Besner, Derek, Shona Daniels, & Christine Slade. 1982. Ideogram reading and right hemisphere language.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73. 21~28.
- Black, Jeremy. 2008. The obsolescence and demise of cuneiform writing in Elam. In John Baines, John Bennet, & Stephen Houston(eds.), *The Disappearance of Writing Systems: Perspectives on Literacy and Communication*. Equinox: London. 45~72.
- Boone, Elizabeth Hill. 2008. The death of Mexican pictography. In John Baines, John Bennet, & Stephen Houston(eds.) *The Disappearance of Writing Systems: Perspectives on Literacy and Communication*. Equinox: London. 253~284.
- Brandt, Carmen. 2016. Scriptural pluricentricity: Hindi-Urdu. In Daniel Bunčić, Sandra L. Kippert, & Achim Rabus(eds.), *Biscriptality: A Sociolinguistic Typology*. Universitätsverlag Winter: Heidelberg. 149~158.
- Brown, David. 2008. Increasingly redundant: The growing obsolescence of the cuneiform script in Babylonia from 539 BC. In John Baines, John Bennet, & Stephen Houston(eds.), *The Disappearance of Writing Systems: Perspectives on Literacy and Communication*. Equinox: London. 73~101.
- Bunčić, Daniel. 2016. History of theoretical research on biscriptality. In Daniel Bunčić, Sandra L. Kippert, & Achim Rabus(eds.), *Biscriptality: A Sociolinguistic Typology*. Universitätsverlag Winter: Heidelberg. 27~50.

- Bunčić, Daniel. 2016ㄴ. A heuristic model for typology. In Daniel Bunčić, Sandra L. Lippert, & Achim Rabus(eds.), *Biscriptality: A Sociolinguistic Typology*. Universitätverlag Winter: Heidelberg. 51~71.
- Bunčić, Daniel. 2016ㄷ. Case studies. In Daniel Bunčić, Sandra L. Lippert, & Achim Rabus(eds.), *Biscriptality: A Sociolinguistic Typology*. Universitätverlag Winter: Heidelberg. 73~319.
- Bushing, Andre, Rolf Bruckmann, & Wolfgang Hartje. 1987. Influence of figural complexity on the identification of kanji and kana characters. *Cortex* 23. 325~330.
- Carroll, David W. 2008. *Psychology of Language*(제5판). Thomson Wadsworth: Belmont, CA.
- Chafe, Wallace & Jane Danielewicz. 1987. Properties of spoken and written language. In Rosalind Horowitz and S. Jay Samuels(eds.), *Comprehending Oral and Written Language*. Academic Press: New York. 83~113.
- Cheung, Emily Yee Man. 2008. Chinese vocabulary acquisition in Hong Kong, 1980-2006. *Hong Kong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11-1. 17~26.
- Cheung, Emily Yee Man. 2011. The development of the Chinese character knowledge in Hong Kong Cantonese-speaking children. *Asian Social Science* 7-5. 25~41.
- CIA World Factbook. <http://www.indexmundi.com/g/r.aspx?v=39>.
- Coulmas, Florian. 1999. *The Blackwell Encyclopedia of Writing Systems*. Blackwell: Oxford.
- Coulmas, Florian. 2003[1999]. *Writing Systems: An Introduction to their Linguistic Analysi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Damerow, Peter & Robert Englund. 1989. *The Proto-Elamite Texts from Tepe Yahya*.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 Daniels, Peter T. 1996. The study of writing systems. In Daniels,

- Peter & William Bright(eds.), *The World's Writing Systems*.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1~17.
- DeFrancis, John. 1984. Digraphia. *Word* 35-1. 59~66.
- DeFrancis, John. 1989. *Visible Speech: The Diverse Oneness of Writing Systems*. University of Hawaii Press: Honolulu.
- Duanmu, San. 2006. Chinese (Mandarin): Phonology. In Keith Brown (ed.),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Linguistics*(제2판). Elsevier: Oxford. 351~355.
- Ehlich, Konrad, Florian Coulmas, & Gabriele Graefen. 1995. *Bibliography on Writing and its Use*. Mouton de Gruyter: Berlin.
- Everaert, Christine. 2010. *Tracing the Boundaries between Hindi and Urdu: Lost and Added in Translation between 20th Century Short Stories*. Brill Academic: Leiden.
- Feldman, Laurie B., M. T. Turvey, & Haskins Laboratories. 1980. Words written in kana are named faster than the same words written in kanji. *Language and Speech* 23-2. 141~147.
- Fishman, Joshua A. 1988. Ethnocultural issues in the creation, substitution, and revision of writing systems. In Bennett A. Rafoth and Donald L. Rubin(eds.). *The Social Construction of Written Communication*. Ablex: Norwood, NJ. 273~86.
- Gaur, Albertine. 2000. *Literacy and the Politics of Writing*. Intellect: Bristol.
- Gelb, Ignace J. 1963[1952]. *A History of Writing*. Charles Scribner's Sons: New York.
- Givón, Talmy. 1979. *On Understanding Grammar*. Academic Press: New York.
- Godart, Louis & Jean-Pierre Olivier. 1976. *Receuil des inscriptions en linéaire A*. 5 vols. Geuthner: Paris.
- Grivelet, Stéphane. 2001. Introduction: Digraphia in Mongolia.

-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Language* 150. 1~10.
- Hannas, William C. 1997. *Asia's Orthographic Dilemma*. University of Hawaii Press: Honolulu.
- Hatta, Takeshi. 1977. Recognition of Japanese kanji in the left and right visual fields. *Neuropsychologia* 15. 685~688.
- Hatta, Takeshi. 1978. Recognition of Japanese kanji and hirakana in the left and right visual fields. *Japanese Psychological Research* 20. 51~59.
- Hill, Archibald A. 1967. The typology of writing systems.' In William M. Austin(ed.), *Papers in Linguistics in Honor of Leon Dostert*. Mouton: The Hague. 92~9.
- Houston, Stephen, John Baines, & Jerrold Cooper. 2003. Last writing: Script obsolescence in Egypt, Mesopotamia, and Mesoamerica.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45. 430~479.
- Kalmár, Ivan. 1985. Are there really no primitive languages? In David R. Olson, Nancy Torrance and Angela Hildyard (eds.), *Literacy, Language and Learning: The Nature and Consequences of Reading and Writ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48~66.
- Kaske, Elizabeth. 2006. Cultural identity, education, and language politics in China and Japan, 1870~1920. In David L. Hoyt & Karen Oslund(eds.), *The Study of Language and the Politics of Community in Global Context*. Lexington Books: New York. 215~256.
- Keller-Cohen, Deborah.(ed.) 1994. *Literacy: Interdisciplinary Conversations*. Hampton Press: Cresskill, NJ.
- Langenscheidt Pocket Dictionary Chinese*. 2005. Langenscheidt: New York.
- Lewis, M. Paul, Gary F. Simons, and Charles D. Fennig (eds.).

2015. Inuktitut, Eastern Canadian. *Ethnologue: Languages of the World*, (18th ed.). Dallas, Texas: SIL International. Online version: <http://www.ethnologue.com/18/>. (2017.2. 11. 접속)
- Lomas, Kathryn. 2008. Script obsolescence in Ancient Italy: From Pre-Roman to Roman writing. In John Baines, John Bennet, & Stephen Houston(eds.) *The Disappearance of Writing Systems: Perspectives on Literacy and Communication*. Equinox: London. 109~138.
- Marslen-Wilson, William D. & Alan Welsh. 1978. Processing interactions and lexical access during word recognition in continuous speech. *Cognitive Psychology* 10. 29~63.
- Meyer, David E. & Roger W. Schavaneveldt. 1971. Facilitation in recognizing pairs of words: Evidence of a dependence between retrieval operation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90. 227~234.
- Miller, George A., George. A. Heise, & William Lichten. 1951. The intelligibility of speech as a function of the context of the test material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41. 329~335.
- Miller, George A., & Stephen Isard. 1963. Some perceptual consequences of linguistic rules.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2. 217~228.
- Neely, James H. 1977. Semantic priming and retrieval from lexical memory: Role of inhibitionless spreading activation and limited-capacity attention.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06. 226~254.
- Neurath, Otto. 1932. Protokollsätze. *Erkenntnis* 3. 204~214. *Online Etymological Dictionary*, <http://www.etymonline/> *Oxford English Dictionary*, <http://www.oed.com/>
- Parpola, Asko. 1994. *Deciphering the Indus Script*. Cambridge

- University Press: Cambridge.
- Pollack, Irwin & James M. Pickett. 1964. Intelligibility of excerpts from fluent speech: Auditory vs. structural context.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3. 79~84.
- Quine, Willard van Orman. 2013[1960]. *Word and Object*. The MIT Press: Cambridge, MA.
- Rayner, Keith, Barbara J. Juhasz, & Alexander Pollatsek. 2008. Eye movements during reading. In Margaret J. Snowling, Charles Hulme(eds.), *The Science of Reading: A Handbook*. Blackwell Publishing: Oxford. 79~97.
- Rayner, Keith, Timothy J. Slattery, & Nathalie N. Bélanger. 2010. Eye movements, the perceptual span, and reading speed. *Psychonomic Bulletin & Review* 17-6. 834~839.
- Reicher, Gerald M. 1969. Perceptual recognition as a function of meaningfulness of stimulus material.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81. 275~80.
- Reischauer, Edwin O. 1960. Traditional Korea: A variant of the Chinese cultural pattern. In Edwin O. Reischauer & John K. Fairbank(eds.), *East Asia: The Great Tradition*. Houghton Mifflin: Boston, MA. 394~449.
- Saenger, Paul. 1991. The separation of words and the physiology of reading. In David R. Olson and Nancy Torrance(eds.), *Literacy and Oral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84~214.
- Sampson, Geoffrey. 1985. *Writing Systems: A Linguistic Introduction*. Stanford University Press: Stanford, CA. 『세계의 문자체계』. 신상순 역(2000). 한국문화사: 서울.
- Sasaki, Masato. 1984. Kusho kodo no hattatsu [The development of kanji finger-spelling]. *Kyoiku Shinrigaku Kenkyu* 32. 34~43.
- Sasaki, Masato. 1987. Why do Japanese write characters in space?

-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0. 135~149.
- Sasaki, Masato & Akira Watanabe. 1983. Kusho kodo no shutsugen to kino: Hyosho no undo kankakuteki na seibun ni tsuite [The appearance and functions of kanji finger-spelling behavior]. *Kyoiku Shinrigaku Kenkyu* 32. 273~282.
- Sasaki, Masato & Akira Watanabe. 1984. kusho kodo no bunkateki kigen [The cultural origins of kanji finger-spelling]. *Kyoiku Shinrigaku Kenkyu* 32. 182~190.
- Sasanuma, Sumiko. 1980. Acquired dyslexia in Japanese: Clinical features and underlying mechanisms. In Max Coltheart, Karalyn Patterson, & John C. Marshall(eds.), *Deep Dyslexia*. Routledge: London. 48~90.
- Sasanuma, Sumiko, Motonobu Itoh, Kazuko Mori, & Yo Kobayashi 1977. Tachistoscopic recognition of kana and kanji words. *Neuropsychologia* 15. 547~553.
- Sereno, Sara C. & Keith Rayner. 2003. Measuring word recognition in reading: Eye movements and event-related potentials. *Trends in Cognitive Science* 7-11. 489~93.
- Shibatani, Masayoshi. 1990. *The Languages of Japan*.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Stadler, Martin Andreas. 2008. On the demise of Egyptian writing: Working with a problematic source basis. In John Baines, John Bennet, & Stephen Houston(eds.), *The Disappearance of Writing Systems: Perspectives on Literacy and Communication*. Equinox: London. 157~181.
- Taft, Marcus. 1987. Morphographic processing: The BOSS re-emerges. In Max Coltheart(ed.), *The Psychology of Reading*. Erlbaum: Hillsdale, NJ. 265~280.
- Unger, James Marshall. 1987. *The Fifth Generation Fallacy: Why Japan is Betting its Future on Artificial Intelligence*. Oxford

범언어적으로 본 문자 표기 방식의 변화와 한글 전용: 이성하

University Press: Oxford.

- Vos, Fritz. 1964. Papers on Korean Studies. In Joseph Koshimi Yamagiwa(ed.), *Papers of the CIC Far Eastern Language Institute, the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MI.
- Vygotsky, Lev. 1934. *Thought and Language*(translation newly revised and edited by Alex Kozulin, 1986). The MIT Press: Cambridge.
- Wheatley, Paul. 1971. *The Pivot of the Four Corners*. Edinburgh University Press: Edinburgh.
- Zhou, Youguang. 1991. The family of Chinese character-type scripts. *Sino-Platonic Papers* 28. 1~11.

이성하

주소: [02450]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소속·직위: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과 교수

누리편지: srhee@hufs.ac.kr

<abstract>

A Crosslinguistic Survey of Changes in Writing Systems and its Implications for Hangeul-Only Writing

Rhee Seongha

This paper surveys the writing systems of the world in order to evaluate some pro-Chinese claims that Chinese characters should be used in elementary school textbooks for Sino-Korean words. As preliminaries, this paper looks into the linguistic, personal, and social functions of writing systems, and shows the development, shift, and disuse of writing systems as attested in history. Based on the exploration of these historical incidents, it refutes the pro-Chinese claims on the ground of linguistic, social, and national aspects of language use. In particular, it argues that the use of Chinese characters would not provide benefits to Korean hangeul, that it would adversely influence the Korean society in terms of identity formation and solidarity among its members, and that it would not contribute to a better communication among the East Asian nations. The argument draws upon historical events and linguistic principles with respect to the cognitive and psychological data processing.

* **Key words:** Writing Systems, Hangeul, Chinese Annotation, Hangeul-Only Writing, Hangeul-Hanja(Korean-Chinese) Mixed Writing, Crosslinguistic Exploration.

<논문 받은 날: 2017. 1. 6.>

<심사한 날: 2017. 1. 13.~2. 6.>

<실기로 한 날: 2017. 2. 9.>